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9권 제1호, 2024, pp. 197-208 https://doi.org/10.36498/kbigdt.2024.9.1.197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시스템 관련 주요 쟁점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Key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search and Creative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in the Field of Theater Arts Using Big Data

이동훈†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요 약

오늘날 대학에서 소속 교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업적평가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정량적 평가 중심 시스템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극예술분야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성과물의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는 연구 및 창작업적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국내 주요 대학의 연극예술 관련 학과에서 시행 중인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기준과 방법을 조사하고, 현재 국내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 다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극예술분야 교원들의 연구와 창작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업적평가, 연구업적, 창작업적, 빅데이터

Abstract

Today,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s conducted in universities to comprehensively assess faculty members have yielded outcomes that deviate from the original intent of the system due to its quantitative assessment-centric approach. The field of theater arts, in particular, faces challenges in fairly and objectively measuring research and creative achievements through traditional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owing to the highly subjective nature of its outputs compared to other academic discipline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the evaluation of research and creativ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theater ar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big data. First, we investigated the current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used in research and creative achievement assessments in theater arts departments at major domestic universities. Next, we analyzed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for research and creativ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theater arts. Finally, we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valuation system using the big data available from the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KOPIS). This study aims to support the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ies of theater arts faculty more effectively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 edge of universities.

■ Keyword : Performance Evaluation, Research Achievement, Creative Achievement, Big Data

2024년 06월 25일 접수; 2024년 06월 26일 게재 확정.
* 본 논문은 2012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2012.09.01.-2013.08.31.)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donghum@dongguk.edu)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교원업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교원업적평가는 소속 교원의 연구, 교육, 봉사, 행정 등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교원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사 및 급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원이 연구와 교육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업적평가 방식이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 양적 위주의 업적평가시스템으로 인한 성과 지상주의로 인해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 연구노트 부실,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위・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업적평가가 교원의 승진, 재임용, 급여 인상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3].

정량적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은 특히 연극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연극예술분야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성과물의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는 연구 및 창작업적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부분의 연극예술 관련 학과에서는 기존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정량적 평가 중심의 교원업적평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성적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2022년 국내・외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제도 소개’에 따르면, 약 53%의 연구자가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가 부실 의심 학술지/학술대회 참여를 유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60%의 연구자가 문제 개선을 위해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원업적평가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해 연극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다. 이를 다각도로 심도 있게 분석하면 연극예술분야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연구 및 창작업적에 대한 정성적 평가의 신뢰도를 의미 있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극예술분야 교원들의 연구와 창작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연구 배경 및 목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영철, 김혜정(2015)은 교원업적평가제도를 4년제, 2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적평가 내용이 인사와 급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와 업적평가에 대한 교원의 의존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혜경, 양기덕(2017)은 국내 대학 교원업적평가 기준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업적평가기준을 비롯한 국내・외 교원연구업적평가 방식을 분석하였다.

노영희 등(2022)은 정량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대학 연구업적평가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성평가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연경, 최윤경(2011)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연구업적물의 유형을 파악하고, 등재학술지의 분류와 더불어 저자 수와 역할에 따른 인정 비율을 차등화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저서의 질적 평가에 따른 저술 활동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진호(2009)는 음악전공 교수 업적평가 방법과 예술분야에서의 연구실적물의 다양성과 연구업적 적합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작물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원업적평가 제도 및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반적으로 드러났다. 정연경, 최윤경의 연구에서 등재학술지의 분류, 교원의 역할에 따른 인정 비율 차등화, 질적 평가에 대한 제안은 정성적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교원업적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예술분야, 특히 연극예술분야 관련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시스템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극예술분야 교원업적평가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시스템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첫 번째 단계로 국내 주요 대학의 연극예술 관련 학과에서 시행 중인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기준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주요 항목으로 연구 및 창작업적 평가 항목, 평가 주기 및 절차, 인사·급여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국내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관련 학술자료, 보고서, 정책문서 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내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시스템 현황과 쟁점

2.1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시스템 현황

2.1.1 연구업적평가

기존 연극예술분야 연구업적평가 시스템 분석을 위해 국내 소재 4년제 대학 중 연극 또는 공연예술 관련 3개 대학의 연구업적평가 항목을 조사하였다. 각 학교 연구업적평가 규정자료 중 논문과 저서 관련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국대학교는 표 1과 같이 논문 관련 9단계, 저서 관련 4단계로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업적평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 SSCI, A&HCI, SCOPUS 등으로 등급화하여 평점에 차등을 두고 있다. 논문과 저서의 경우 모두 게재 편수, 출판 편수 등 정량실적을 근거로 평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대학교는 표 2와 같이 논문 관련 12단계,

표 1. 동국대학교 연구업적 주요평가항목[5]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논문	국제저명학술지(A) (SSCI, A&HCI)	500
	국제저명학술지(A) (학문분야별 JCR 상위 60% 이내의 SCI 및 SCIE)	300
	국제저명학술지(B) (학문분야별 JCR 하위 40% 미만의 SCI 및 SCIE)	180
	국제저명학술지(C) (SCOPUS)	150
	국내저명학술지(A) (KCI 등재지)	120
	국내저명학술지(B) (KCI 등재후보지)	100
	국제일반학술지	120
	국내일반학술지	80
	기타	40
저서	전문학술저서	200
	일반저서	100
	번역서, 사전, 중등교과서	100
	기타	40

표 2. 국민대학교 연구업적 주요평가항목[6]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논문	Science, Nature, Cell	1000
	국제학술지(SSCI, A&HCI)	400
	국제학술지(SCI, 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5% 이내)	600
	국제학술지(SCI, 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10% 이내)	400
	국제학술지(SCI, 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20% 이내)	300
	국제학술지(SCI, 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40% 이내)	250
	국제학술지(SCI, SCIE)	200
	국제학술지(SCOPUS)	150
	국제학술지(일반)	50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지)	100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80
	국내학술지(일반)	30
학술대회 발표논문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30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0
	연구재단 인정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Computer Science 분야)	200
저서/ 번역서	국제전문서적	200
	국제전문편저서	100
	국내전문서적/(창작집)	150
	국내전문편저서	100
	창작집번역서-인문계열	100
	학술번역서(외국어로 번역)	100
	학술번역서(한글로 번역)	70
	학술교재(전공교재 포함)	100

표 3. 홍익대학교 연구업적 주요평가항목[7]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논문	국제저명전문학술지(국제공인목록(A&HCI, SSCI, SCI)에 포함된 학술지로 학문분야별 저널 백분위 순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점수 부여. SCIE 또는 백분위 순위가 없는 경우 8.0점)	8.0 -10.0
	국제전문학술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 학술지 선정. 국내 전문학술지와 동등 이상의 등급이 인정되는 학술지. Scopus에 포함된 학술지)	6.0
	국내전문학술지(학술연구재단 등재지)	4.0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게재	3.0
저술	국내외 전문 학술서적 출판(초판에 한함)	3.0

저서 관련 8단계로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업적 평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동국대학교와 유사하게 학술지를 등급화하여 평점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은 동국대학교의 평가 항목과 구분되는 점이다. 또한 국민대학교도 동국대학교와 동일하게 논문과 저서/번역서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홍익대학교는 표 3과 같이 논문 관련 4단계, 저서 관련 1단계로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업적 평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와 동일하게 학술지 등급에 따른 평점 차등 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논문과 저술 활동에 대해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3개 대학의 연구업적 주요 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각 대학은 연극예술분야와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업적 평가 항목 구분 없이 다른 전공계열과 동일한 평가 항목으로 연구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논문 게재, 저술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해당 활동의 건수에 따른 정량평가 방식으로 연구업적평점이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창작업적평가

연구업적평가에 이어 위의 3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극예술분야 관련 창작업적평가 항목을 조사하였다. 각 학교 창작업적평가 규정자료 중 창작, 출연, 제작 등 전반적인 창작활동 관련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국대학교는 표 4, 표 5와 같이 창작업적 세

표 4. 동국대학교 창작업적 세부평가항목 및 평점[8]

평가항목	등급별 요건	평점
국제저명작품	G8국가의 전문극단이 제작한 작품 또는 저명한 국제연극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써, G8국가의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을 말한다.	300
국내저명작품	가.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고, 관객 수 300석 이상의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120
국외일반작품	국제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을 말한다.	120
국내일반작품	국내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10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을 말한다.	80
기타 작품	국외일반, 국내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60분 미만의 공연 작품을 말한다.	40

표 5. 동국대학교 창작업적 참여역할별 인정비율[9]

역할 구분	내용
연출, 주연, 창작희곡, 연극시나리오, 뮤지컬대본	200%
제작(프로듀서), 기획, 예술감독, 조명디자인, 무대디자인, 음향디자인, 연기감독, 음악감독, 의상디자인, 기술감독, 무대감독, 조연	100%
드라마투르기, 공연번역, 조단역	50%

부평가항목과 인정비율을 합산하여 창작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저명도에 따른 평가 항목을 5단계로 구분하고, 참여역할에 따른 역할을 3단계로 구분하여 평점과 인정비율을 곱하여 최종 창작업적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연장의 규모, 극단의 전문성, 각 분야별 참여역할을 세분화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기준 역시 앞서 살펴본 연구업적평가와 유사하게 정량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평가대상 창작물 자체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대학교는 표 6과 같이 창작, 출연, 디자인/기술/기획, 공연행사, 평론, 공동작업, 수상의 7개 항목에 대해 창작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참여역할에 따른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동국대학교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평론, 공동작업, 수상 등 항목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국민대학교 역시 동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평가대상 창작물 자체에 대한 정성평가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국민대학교 창작업적 세부평가항목 및 평점[10]

평가항목	등급별 요건	평점
창작	연극연출, 연극극작, 공연제작총괄	국제 200, 국내 150
	출판이나 제작된 희곡, 시나리오(장편)	국제 200, 국내 150
	출판이나 제작된 희곡, 시나리오(단편)	국제 100, 국내 80
	희곡, 시나리오 번역 및 각색, 드라마터지	국제 100, 국내 80
출연	주연급	국제 200, 국내 150
	조연급	국제 100, 국내 80
디자인/기술/기획	디자인분야(세트, 조명, 무대의상디자인), 무대기술분야(음향, 소품디자인, 기술감독, 무대감독), 기획분야(제작, 홍보, 마케팅)	국제 150, 국내 100
	디자인분야(세트, 무대의상제작, 조명오퍼레이션), 무대기술분야(음향, 소품제작, 무대조감독, 기술crew참여), 기획분야(제작, 홍보, 마케팅)	국제 80, 국내 50
	초대전시	국제 200, 국내 150
	일반전시	국제 150, 국내 100
	전시기획 총감독	국제 200
	전시기획 커미셔너, 큐레이터	국제 120
	일반 전시기획	국내 80
	공모전 및 극장현상 설계수상	국제 50-150, 국내 30-100
	극장 준공작품 및 계획작품 게재	국제 50-120, 국내 30-100
공연행사	공인된 연극제, 무용제 예술감독/총연출	국제 200, 국내 100
평론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및 공연비평	국제 100, 국내 50
	전문매체 및 전문지 리뷰, 프리뷰	국제 50, 국내 30
공동작업	공동작업 인원수에 따라 환산율 적용	
수상	공연/무용/무대디자인 관련 예술상	국제 150, 국내 100

홍익대학교는 표 7, 표 8과 같이 7개 항목에 대해 등급별 요건을 적용하여 창작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와 유사한 구조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음악 전공이 중심인 학과 특성에 따라 연주회(콘서트) 활동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항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홍익대학교도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와 동일하게 평가대상인 창작물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창작업적평가와 관련하여 3개 대학의 주요 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각 대학은 연극예술분야

표 7. 홍익대학교 창작업적 세부평가항목 및 평점[11]

평가항목	등급별 요건	평점
국내외 저명 공연장 초청 단독 연주회(콘서트)	국제 저명 공연장 및 오케스트라 초청	10.0
	국내 저명 공연장 및 오케스트라 초청	8.0
뮤지컬 등 공연, 연주회(콘서트), 공연 및 음악축제, 창작물 및 영상물	제작(기획), 연출, 대본, 작곡, 출연(주연), 각 분야 감독급(음악감독, 안무감독, 무대디자이너 등 예술스태프),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 지휘(2관 편성 이상 대규모/전곡)	A급 6.0, B급 4.0, C급 2.0
	대본(공동), 작곡(공동), 출연(조연),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 지휘(체임버 오케스트라 급, 소규모)	A급 3.0, B급 2.0, C급 1.0
	오케스트라 단원, 밴드 등 연주팀원	1.0
국내외 연주회(콘서트) 및 작곡발표회	단독 연주회	A급 6.0, B급 4.0, C급 2.0
	2인(팀) 이상 공동 연주회(콘서트)	A급 4.0, B급 3.0, C급 1.0
	제작(기획), 연출, 국내외 전문오케스트라 지휘 및 협연(2관 편성, 60인조 이상)	A급 5.0, B급 3.0, C급 1.0
	소규모 오케스트라(체임버 오케스트라 급) 지휘 및 협연, 음악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등 각 분야 감독급, 작가	A급 3.0, B급 2.0, C급 1.0
	오케스트라 단원, 밴드 등 연주팀원, 기타 부분참여(편곡 등)	1.0
기타 창작물	작사, 작곡(곡당)	1.0
	음반 및 음원 발표(본인 팀 명의로 발표된 음반 및 음원 - 타이틀 롤)	정규 6.0, 미니 4.0, 기타 2.0
	음반 및 음원 참여(기획, 제작, 프로듀스, 보컬, 연주,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정규 3.0, 미니 2.0, 기타 1.0
영상물(영화, 방송드라마, 기타 방송프로그램 등)	기획(제작), 연출, 시나리오, 작곡, 각 분야 감독급, 출연(주연)	5.0
	대본(공동), 작곡(공동), 출연(조연)	3.0
	기타 국내외 TV 방송프로그램의 출연, 연출, 대본, 작곡, 각 분야 감독급, 연주 참여	1.0
초청공연	국제 저명 예술제, 문화예술축제, 영화제, 음악축제 초대: 주연급 출연 및 총감독급 기획	단독 10.0, 공동 3.0
	국제 저명 예술제, 문화예술축제, 영화제, 음악축제 초대: 연출, 대본, 작곡, 각 분야 감독급, 조연급 출연, 제작, 기획	단독 5.0, 공동 2.0
	기타 국내외 저명 예술제, 문화예술축제, 영화제, 음악축제 초대: 주연급 출연 및 총감독급 기획	단독 6.0, 공동 2.0
	기타 국내외 저명 예술제, 문화예술축제, 영화제, 음악축제 초대: 연출, 대본, 작곡, 각 분야 감독급, 조연급 출연, 제작, 기획	단독 3.0, 공동 1.0
수상실적(학술상, 문화예술시상 등)	국제 저명 학술상 및 문화예술시상	대상급 8.0, 부문별 4.0
	국내 저명 학술상 및 문화예술시상	대상급 4.0, 부문별 2.0

표 8. 홍익대학교 창작업적 등급 분류[12]

등급	내용
A급	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LG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 등 대관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인된 전문공연시설 중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의 작품발표 및 연주. ② 광역시 대극장 급의 공연장(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등), 지방 800석 이상 대극장에서의 작품발표 및 연주(야외 공연장 포함). ③ 800석 이상 해외 유명 전문공연장에서의 작품 발표나 연주(교회 등 공인된 전문공연장이 아닌 곳에서의 연주 제외)
B급	① 공인된 공연장 및 연주회장에서의 단독 콘서트, 공공 및 민간의 초청 콘서트(단독). ②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LG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 등 대관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인된 전문공연시설 중 5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의 작품 발표 및 연주. ③ A급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수도권 소재 공인된 전문공연장 및 연주회장에서의 작품발표나 연주(300석 이상). ④ A급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 전문공연장에서의 작품 발표나 연주(400석 이상). ⑤ 국내 대규모 뮤지컬 및 음악 전문 Festival에서의 작품 발표와 연주. ⑥ 300석 이상 해외 유명 전문공연장에서의 작품 발표나 연주(교회 등 공인된 전문공연장이 아닌 곳에서의 연주 제외)
C급	① A급, B급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된 공연장이나 대학부설강당에서의 작품 발표 및 연주. ② 장소를 불문하고 일반적 연주회의 형태가 아닌 각종 축제, 세미나 등에서 연주하는 경우.

와 관련하여 별도의 창작업적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연을 비롯한 창작활동 자체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연구업적평가와 마찬가지로 활동 건수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정량평가를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교수업적평가 관련 쟁점

2.2.1 정량적 평가의 한계

연극예술분야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기존 정량적 평가의 한계이다. 논문 게재 및 인용 편수, 저술한 저서의 수, 수상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다른 학분 분야와는 달리, 연극예술분야에서는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예술적·창의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업적물의 가치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의 도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논문과 저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업적물, 창작과 출연, 제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업적물 질적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2.2.2 연구윤리 문제

두 번째는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을 표절하거나 학생들의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보고되는 등 표 9와 같이 다양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Ⅲ.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수업적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과정에서 정량적 평가의 대안으로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본 장

표 9. 예술 · 체육 분야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 [13]

<table>
<tr><th>사례</th><th>내용</th></tr>
<tr><td rowspan="3">A</td><td>논문 표절로 정직 징계 처분
<table>
<tr><td>학문분야</td><td>직위</td><td>연구물유형</td><td>행위유형</td><td>징계시효</td><td>대학측처분</td></tr>
<tr><td>예술체육학</td><td>전임교원</td><td>학술논문</td><td>표절</td><td>미경과</td><td>정직</td></tr>
</table></td></tr>
<tr><td>1. ○○학부 A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학술지 자체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었고, A교수 또한 소명서를 통하여 표절 사실을 인정하였음
2. 징계요청(관련 근거: 대학 연구윤리규정 제**조 *항).
3. A교수 정직 3개월 처분,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조(성실의무), 제*조(품위유지의무) 위반.</td></tr>
<tr><td rowspan="3">B</td><td>지도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경고 처분
<table>
<tr><td>학문분야</td><td>직위</td><td>연구물유형</td><td>행위유형</td><td>징계시효</td><td>대학측처분</td></tr>
<tr><td>예술체육학</td><td>전임교원</td><td>학술논문</td><td>표절</td><td>경과</td><td>경고</td></tr>
</table></td></tr>
<tr><td>1. 국정감사에서 □□대학 A교수가 대학원 제자인 C, D의 석사학위논문을, B교수는 제자 E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여부 조사.
2.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절’ 판정 결과에 따라 대학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3.「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의결요구는 불가하나,「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2020.1.)」 공무원의 주의 · 경고 등 처분지침에 따라『경고』처분.</td></tr>
<tr><td rowspan="3">C</td><td>제자 출품작에 부당한 미성년자녀 공저자 표시의 연구부정과 기타 사유로 파면 처분
<table>
<tr><td>학문분야</td><td>직위</td><td>연구물유형</td><td>행위유형</td><td>징계시효</td><td>대학측처분</td></tr>
<tr><td>예술체육학</td><td>전임교원</td><td>학술논문</td><td>부당한 저자 표시</td><td>미경과</td><td>감봉, 성과급 및 보수 반영</td></tr>
</table></td></tr>
<tr><td>1. 학술논문을 출판한 저자가 직접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
2. 의혹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학회에서 발행하는「○○○학회지」(제 **권 *호)에 교신저자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 참여 · 기여하지 않은 자를 임의로 제1저자로 변경 · 등록하여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함을 판정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요구</td></tr>
<tr><td rowspan="3">D</td><td>연구실적 작품의 부당한 중복게재 및 기타사유로 해임 처분
<table>
<tr><td>학문분야</td><td>직위</td><td>연구물유형</td><td>행위유형</td><td>징계시효</td><td>대학측처분</td></tr>
<tr><td>예술체육학</td><td>전임교원</td><td>작품</td><td>부당한 중복게재</td><td>미경과</td><td>해임, 징계부가금</td></tr>
</table></td></tr>
<tr><td>1. 수년 동안 동일한 미술작품을 전시한 실적을 소속 대학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연구 점수를 획득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를 하였음.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1(성실의무 위반), 7(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요구)에 의거 중징계 의결을 요구.
3. 부당한 중복게재 판정과 기타 사유를 병합하여 징계 처분.
- 해당 교원이 신청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이 취소됨.</td></tr>
</table>

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정성적 평가를 위한 실행 방안과 그 기대효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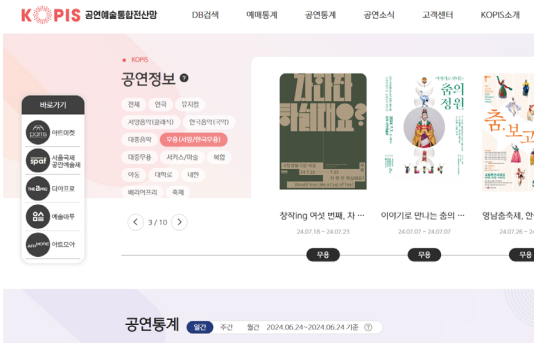

그림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홈페이지

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14]'로 정의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연구 및 창작업적물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교한 평가가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기존 평가 방법으로는 공연 횟수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만이 가능했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성적 평가 방법으로는 경우 공연 작품에 대한 관객 반응, 평론가의 평가,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업적물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구축, 운영 중인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15]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수업적평가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분산된 공연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집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연법 제4조, 제43조에 의거하여 공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기초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연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16].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총 192개의 예매 플랫폼과 공연시설 및 기획제작사를 통해 국내에서 전산으로 발권되는 모든 공연의 예매와 취소 데이터를 일 단위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표 10.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공 데이터 항목[17]

구분	제공 항목	
DB검색	• 공연 목록 • 공연시설 목록 • 기획/제작사 목록 • 축제 목록	• 공연 상세 • 공연시설 상세 • 수상작 목록 • 극작가 목록
예매통계	• 예매상황판 • 장르별 통계 • 가격대별 통계	• 기간별 통계 • 시간대별 통계
공연통계	• 기간별 통계 • 장르별 통계 • 공연별 통계 • 가격대별 통계	• 지역별 통계 • 국내/내한별 통계 • 공연시설별 통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DB검색, 예매통계, 공연통계 자료를 무료열람과 Open API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항목은 표 10과 같다.

위와 같이 제공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정성적 평가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DB검색 자료를 활용하여 창작업적의 목록과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연출, 제작, 출연을 비롯한 참여 역할을 검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창작업적의 평가, 리

그림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수집 구조

뷰, 관객 수를 분석하여 해당 업적의 질적 수준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창작업적이 공연된 공연시설의 수준과 평판, 협업한 공연제작사의 역량 등을 분석하여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매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창작업적의 예매율과 판매 현황을 분석하여 실제 해당 분야에서 유의미한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간, 장르, 시간, 가격대에 따라 판매된 티켓을 분석하여 해당 창작업적이 만들어진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다. 끝으로 공연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창작업적이 공연된 지역과 횟수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창작업적 공연이 특정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단순 반복 공연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낼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먼저 국내 주요 대학의 연극예술 관련 학과에서 시행 중인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 기준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이어 현재 국내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업적평가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극예술분야 연구업적평가는 논문게재, 저술 활동을 중심으로 해당 활동 건수에 대해 정량평가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전공 분야와 평가 방식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업적평가는 다른 전공 분야와 별도의 창작업적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창작, 출연, 제작 등 전반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연을 비롯한 창작활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 기준 없이 연구업적평가와 같이 활동 건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기존 정량적 평가 방식의 대안으로 연극예술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연구 및 창작업적을 관객 반응, 평론, 사회・학문적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DB검색 자료, 예매통계 자료, 공연통계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적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극예술분야 연구 및 창작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실제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적용 사례 분석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다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제외한 다른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극예술분야 교원들의 연구와 창작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연구재단, 2022 국내・외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제도 소개, 한국연구재단, p.3, 2022.
[2] 한국연구재단, 2021년 대학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p.14, 2021.
[3] 유영철, 김혜정, “교수업적평가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업적평가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4권, 제3호, p.83, 2015.
[4] 한국연구재단, 2022 국내・외 대학의 연구업

적 평가제도 소개, 한국연구재단, p.4, 2022.
[5] https://rule.dongguk.edu/lmxsrv/main/main.srv
[6] https://rule.kookmin.ac.kr/lmxsrv/main/main.do
[7] https://www.hongik.ac.kr/kr/introduction/regulations-book.do
[8] https://rule.dongguk.edu/lmxsrv/main/main.srv
[9] https://rule.dongguk.edu/lmxsrv/main/main.srv
[10] https://rule.kookmin.ac.kr/lmxsrv/main/main.do
[11] https://www.hongik.ac.kr/kr/introduction/regulations-book.do
[12] https://www.hongik.ac.kr/kr/introduction/regulations-book.do
[13] 한국연구재단,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pp.24-47, 2021.
[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1554&cid=42171&categoryId=42183
[15] https://www.kopis.or.kr/por/main/main.do
[16] https://www.kopis.or.kr/por/cs/kopis/info/csInfo.do?menuId=MNU_000105&searchWord=&searchType=total
[17] https://www.kopis.or.kr/por/cs/openapi/openApiList.do?menuId=MNU_00074l

저 자 소 개

이 동 훈(Donghun Lee)
・1997년 6월 : 뉴욕시립대학교 연극학과 (예술전문석사)
・2000년 3월~현재 :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교수
<관심분야> : 극장기술, 연출, 연극디자인